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 나는 메시아 I

(요 4:25-29)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땅 위에 오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인자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 주님, 사랑하는 자, 대제사장 등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 앞에 붙여지는 별호는 그분의 품성과 업적을 나타냅니다.

### 1. 자존자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여인은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등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 말에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로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그로라'는 곧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에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출 3:14).

자존자의 반대말은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존 하시는 분이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요, 자율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립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합니다.

### 2. 나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말이며, 우리말은 구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감추어진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고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얻어 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25절 말씀은 성경에서 지워져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신 18:18) 너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이 잘못된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어찌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순수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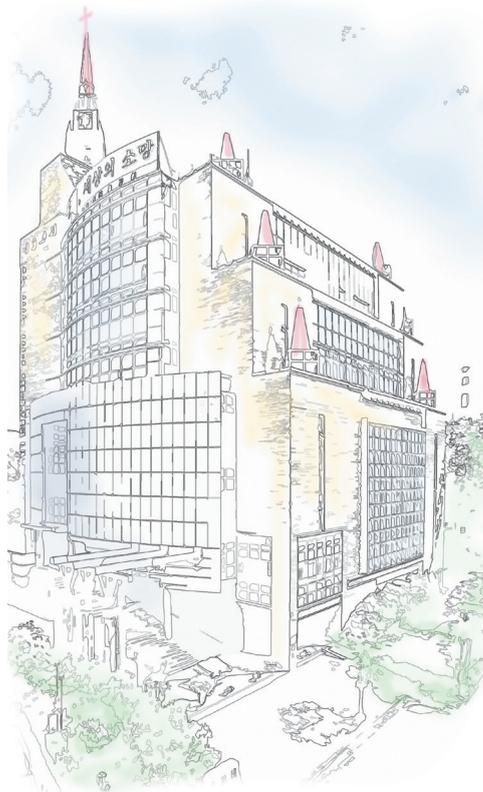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13을 보면 사무엘이 미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28:41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9:16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3중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대도(代禱)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화살표를 그린다면 제사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이고 선지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이시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분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왕으로서 우리의 생명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건강한 자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손에 쥐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없되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완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다음 주 계속)



## 교회학교별 인터넷 예배에 더욱 힘쓰길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계홍 장로)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교회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현재 교회학교별 밴드에 올리는 각 부서 예배 참석 독려에 힘을 쏟을 것을 부탁하였다.

7월 하반기부터 각 교회학교별 예배에 댓글이나 인증 샷을 남겨 출석 체크를 확인하고 이를 연말 시상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계홍 장로는 "현재도 교역자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수고가 많으며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혼 구원에 더욱 힘써 주시고 부모님께서는 사진이나 댓글로 자녀들이 예배한 것을 알려 주셔서 연말에 교회학교 많은 학생들이 선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종윤 목사(국군중앙교회) 김은숙 전도사  
이영재 박동우·백승경 류시조·신숙진 윤종현  
이흥기·이옥희·이승준 이종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7(주)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일시: 10. 10(토)



## 제헌절과 제헌국회

지난 16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개원했으며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이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칠칠절(七七節)을 국가 3대 명절로 지킨다. 그들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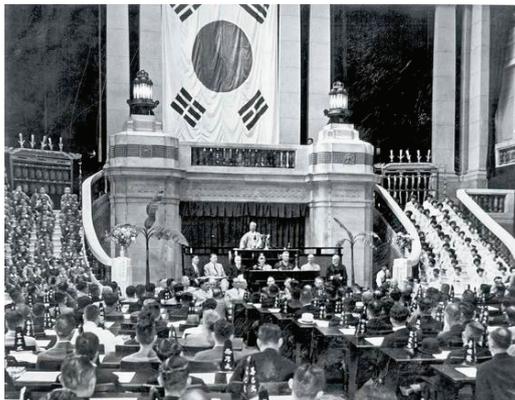
우라도 하나님께 받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첫 국회를 제헌의회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세운 나라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중앙청 회의실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5.10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당시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 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이렇게 기도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 나이다..."(전문은 3면 참조)

민족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순간,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되었고, 이 사건은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



▲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제헌국회의 시작

졌음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헌국회는 곧바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해 헌법 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선출을 결의했는데, 이윤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은 헌법 기초위원회는 약 한 달간의 작업 끝에 7월 12일 헌법을 통과시켰고 7월 17일 이 헌법이 공포됐

다.

제헌절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제헌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날인 것이다. 제헌의원 가운데는 이윤영 의원 말고도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등이 목회자 출신이었고, 이승만과 김동원, 김상돈, 강영욱, 윤치영, 황두연, 서용길, 윤재근, 홍성하, 정준 등이 평신도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당시 전체 의원 198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5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땅에 이러한 믿음의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한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민족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이 크게 확장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사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헌법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복음전파의 기도인 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편집부)

#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졌다



故 이윤영 목사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돌보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呈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엔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임할 수 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믿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

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 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 인도 아가페학교를 후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 ① 아가페학교 스포츠 데이
- ② 아가페학교 조회 모습
- ③ 아가페교회 주일 예배
- ④ 점심시간
- ⑤ 가정방문 학습지도
- ⑥ 아가페학교 부설 유치원
- ⑦ 아가페학교 체육 시간

파르시아!  
그동안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울교회와 당회, 선교위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Covid-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고 서울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재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심과 아가페학교 2층 건축 특별 선교

비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3월 13일에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3월 25일부터 3주간 봉쇄령이 시작되어 이주 노동자들은 일을 못하고 모든 교통수단이 봉쇄되어 수백 킬로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세계 순위권 안에 들어가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가페학교는 교훈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하고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가페학교는 2017년 6월에 개교하여 현재는 유치원 LKG, UKG 반과 초등학교 1, 2학년 전교생이 85명이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입학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인도의 각 주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개학 시기는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4면에 계속)

(3면에 이어서)

학급과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이 부족하여 아가페학교 2층 증축이 서울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선교사역을 위해 학교 2층 증축 특별 선교비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아가페 교회, 나가나할리 교회, 니모처나 교회, دن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가페학교는 너무 오랫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못함으로 전화 수업과 가정방문을 하며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교가 개학되기 전에 남학생 화장실과 경비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안정되어 평강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선교사 우상식, 김정옥 올림



아가페 학교 건축 보고

- ① 아가페학교 2층 철근 공사
- ② 아가페학교 2층 공사
- ③ 아가페교회 경비실 공사
- ④ 경비실 및 화장실 외벽 공사
- ⑤ 화장실 벽돌 공사
- ⑥ 경비실 및 화장실 외벽 미장 공사

“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4)  
”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0일	월	전 7-12		민 4-7	
7월21일	화	아 1-8		민 8-12	
7월22일	수	사 1		민 13-16	
7월23일	목	사 2-4		민 17-22	
7월24일	금	사 5-8		민 23-28	
7월25일	토	사 9-11		민 29-32	
7월26일	주일	사 12-17		민 33-36	

주일 주차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주차위원들의 대신 주차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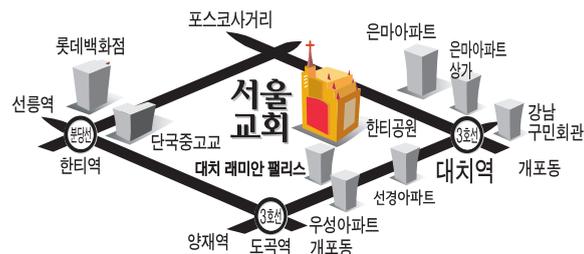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